

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 6월부터 경인지역 시작으로 릴레이 채용설명회, 용접 훈련생 2,000명 추가 확대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종에 대해 해당 지역을 넘어 광역 단위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5월 25일(금) 조선업취업지원허브TF 발대식을 갖고, 현장 인력수급 모니터링, 구직-구인 풀 구성 및 매칭, 용접 등 관련 분야 훈련생 연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5사, 조선업도약센터, 공동훈련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선업 인력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부·울·경, 전라권 조선업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 건의·애로사항 12건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6월부터 울산·경남·전남·전북 4개 조선업도약센터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부터 릴레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족한 용접분야 훈련인원을 2,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등 조선업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예산반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타부처 소관 과제는 범정부일자리추진반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 산업인 조선업종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첫 광역 취업지원 서비스 업종으로 조선업을 선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TF 네트워크 발대식 참고자료

2 현장활동 건의·애로사항 및 주요 지원계획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혁신TF	책임자	과 장	임대섭 (044-202-7327)
		담당자	서기관	김유리 (044-202-7369)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044-202-7323)
담당 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조선업취업지원허브 TF	책임자	소장(팀장)	김상용 (051-860-2192)
		담당자	주무관	정제운 (051-860-1901)

□ 행사 개요

-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TF」와 조선업 협회, 공동훈련센터, 도약센터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TF 추진경과 보고, 현판식, 간담회)

- * ▲(일시·장소) 5.25.(목), 오후 13:00~13:40(40분), 부산고용복지+센터
- ▲(참석) 고용정책실장, 부산청장, 조선업취업지원허브 TF 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협회·조선5사·공동훈련센터 임원, 도약센터장, ISC 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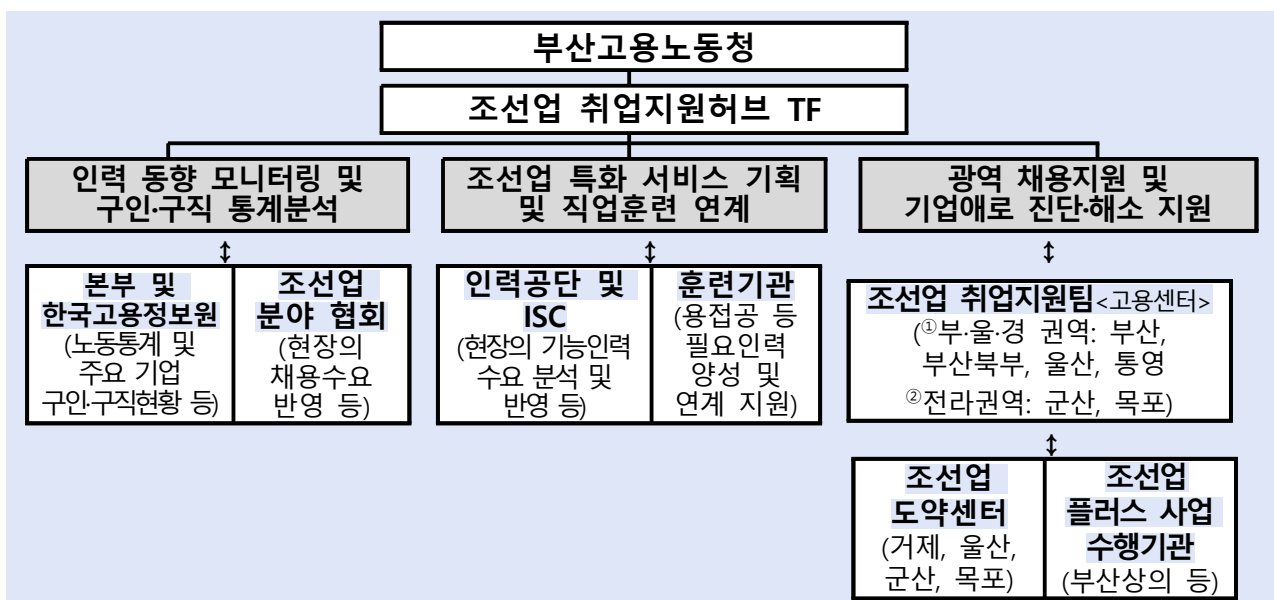
□ 「조선업취업지원허브」란?

- (개요) 국가 주요사업인 조선업종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조선업취업지원 허브」를 고용센터에 구축 추진 중

- * 「TF」는 이를 준비 및 시범운영하는 기구로서 하반기 「조선업취업지원허브」로 흡수·통합

- (주요 기능) 부산·울산·경북·목포·군산 등 권역을 이루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 광역 단위 채용 지원 서비스 기획·운영

- 협회, 기업, 지자체, ISC, 훈련기관 등 취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광역 채용지원 및 기업 애로 진단·해소 지원
- 현장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 및 구인·구직 통계 분석
- 조선업 특화 서비스 기획 및 폴리텍·특성화고·훈련기관 등 직업훈련 수료생 연계



- ◇ 총 12건의 과제 중 고용부 소관 과제 8건으로
 ▲ 고용서비스 2건, ▲ 장려금 2건, 직업훈련 1건, ▲ 외국인 3건
 ◇ 이 중, 3건의 과제는 기 시행 중, 2건은 즉시 추진, 3건은 '24년 예산 반영 검토·추진
 ◇ 타부처 소관 과제 4건은 일자리 TF(고용노동부 차관주재) 등을 통해 적극 건의

연번	과제명 및 주요내용	검토결과 및 지원계획
1	■ 고용서비스 조선업 릴레이 매칭데이 실시 요청 - 조선업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채용행사 진행 요청	■ 수용: 즉시 추진 - '23.6월부터 4개* 조선업도약센터와 협업하여 인천·경기 지역에서 4개 권역 광역 취업설명회, 채용행사 추진 *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23.7월~ 자체 릴레이 매칭데이 계획 수립 및 추진
2	■ 고용서비스 타지역 채용행사 진행시 지자체 협조요청 - 타지역에서 채용행사 진행 시 인력유출을 우려하여 지자체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조 요청	■ 수용: 즉시 추진 - 타지역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에 적극 사전조율 및 협조 공문 등 요청
3	■ 장려금 장기근속 지원금 신설 제안 - 신규입직자가 3~4년차의 숙련공으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제도 신설 요청	■ 수용 : 예산 반영 추진 - 「조선업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4년 조선업 재직자 대상 2년 만기 공제사업 신설 추진 중
4	■ 장려금 이주정착비 지원 강화 - 타지역근로자 채용에 따른 이주근로자 정착을 위해 공동기숙사 건립비, 건물임대료 지원 등 지원 강화 요청 -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수용: 예산 반영 추진 -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주거비 등 지원이 가능, 다만,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경남, 전남 등에서는 '23년 예산에서는 채용장려금, 희망공제 중심으로 운영 중 - '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시 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
5	■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차등 지원 - 용접 등 조선업 관련 훈련에 지원하는 사람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타업종과 훈련비용에 차등을 두고 지원 요청	■ 수용: 기시행 중 - 용접 등 훈련과정 훈련가능 인원 2,000명* 추가 확대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1천명,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사업 훈련 등 7백명,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3백명 등 - 제과제빵, 미용 등에 비해 용접·전기·도장 등 분야의 훈련비가 더 높은 수준 -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별훈련을 통해 기존 단가 보다 130% 이상 우대 지원 가능
6	■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비 지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나 건물을 임대하여 외국인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수용: 예산 반영 추진 - 4번 과제와 동일
7	■ 외국인 E-9 입국 등 진행 상황 공유 - 외국인 근로자 채용준비(숙소 등)를 위해 사전에 현장 투입일을 알 필요, 입국 진행상황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채용일을 알 수 있도록 진행 상황 공유 요청	■ 수용: 추진 중 - 입국일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증발급 정보를 EPS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
8	■ 외국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 직접 면접 허용 - 비전문외국인취업(E-9) 채용 과정에서 회사(협력사)가 직접 면접 후 채용여부 확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음	■ 수용: 기시행(대안) - 현지 EPS 센터를 통한 근로자 면접내용 영상이 EPS에 제공되어 사업주가 면접영상 확인 가능 - 사업장변경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알선받은 근로자에 대해 면접 후 채용여부 결정 가능